

대학생·고시생 “사법시험 존치되어야,,,”

사법시험 존치 여부의 직접 당사자인 미래의 법조인, 대학생과 고시생들의 법조양성제도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학생, 고시생들이 희망하는 법조인 양성제도’토론회가 지난 8월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그간의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제발표자와 토론자의 대다수가 고시생과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자로 대학생정치포럼의 박지윤씨(연세대학교)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가 나서 ‘사법시험 폐지, 사다리 걷어차기’, ‘사법시험 준비생이 바라본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에 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창지훈씨(사법시험 준비생)와 이예은씨(미국 일리노이노क्स 대학교), 강민욱씨(동의대학교), 광승근씨(홍익대학교), 박병찬씨(성공회대학교), 강승연 헤럴드 경제 기자가 참여했다. 권민식씨는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그에 대비되는 사법시험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회로가 없는 대학원 과정’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로 인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률저널 인용)